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대외 경계감 속 안도하기 이른 KOSPI 7,000 선 회복

- 중동발 부담 지속, 미 재무부 바이백이 금리 안정 변수
- 대외 부담에도 AI 모멘텀 견조, KOSPI 7,000선 안착
- 업종별 호재에 순환매 확산, 2차전자·정유/화학·조선 강세 뚜렷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대외 경계감 속 안도하기 이론

KOSPI 7,000선 회복

- 중동발 부담 지속, 미 재무부 바이백이 금리 안정 변수
- 대외 부담에도 AI 모멘텀 견조, KOSPI 7,000선 안착
- 업종별 호재에 순환매 확산, 2차전자·정유/화학·조선 강세 뚜렷

중동발 부담 지속, 미 재무부 바이백이 금리 안정 변수

중동 내 군사적 충돌은 지속. 미군은 이란 하르그섬 인근 유조선 5척을 공격. 이에 이란은 보복 조치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IRGC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10척을 공격했다고 주장. 추가로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시설과 공군기지를 공격하며 긴장 수위 격상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WTI,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94달러, 99달러까지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제한. 국제 유가 레벨업으로 미국채 금리도 상승 기조 유지하며 2년물, 10년물, 30년물 금리는 각각 4.40%, 4.79%, 5.25% 수준을 기록

한편, 금일 자정에는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규모가 발표될 예정. 베네통 장관은 바이백이 양적완화가 아니며, 시장 불균형을 균형으로 되돌리는 역할이라고 설명. 현재 발표를 앞두고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일부 진정된 상황. 바이백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단기적일지라도 미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높음

대외 부담에도 AI 모멘텀 견조, KOSPI 7,000선 안착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며 7,000선에 안착. 미국-이란 군사 충돌과 미국-캐나다 통상 갈등, 국제 유가 및 주요국 국채 금리 레벨업이 증시의 상승 탄력을 제한. 다만 AI 모멘텀이 이를 상쇄하며 지수 하단 지지

OpenAI의 GPT-6 아스트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Citi TMT 컨퍼런스와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로 AI 성장성과 수요 기대가 부각. 관련 업종 투자심리 개선되며 주가 상방 압력으로 연결

미국 증시에서도 브로드컴(+3.0%), AMD(+5.9%), 인텔(+9.1%), 램리서치(+4.2%)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 미국 반도체주 강세도 국내 AI 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업종별 호재에 순환매 확산, 2차전자·정유/화학·조선 강세 뚜렷

미 교통부 장관의 포드-중국 배터리 협업 비판과 4조원 규모 태국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개별 모멘텀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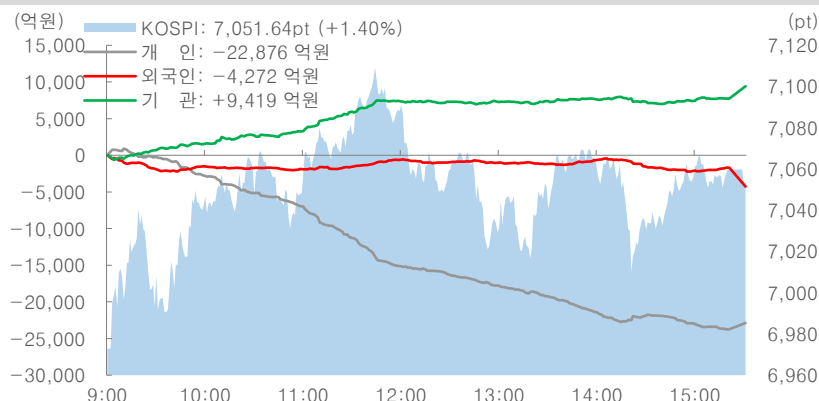
2차전자: 삼성SDI(+8.3%), LG에너지솔루션(+6.5%), 포스코퓨처엠(+6.4%)

정유/화학: SK이노베이션(+11.2%), S-Oil(+4.1%), 롯데케미칼(+18.1%)

조선: HD현대중공업(+4.3%), 한화오션(+2.3%), 한화엔진(+7.7%)

전력기기: LS ELECTRIC(+5.5%), HD현대일렉트릭(+3.2%), 효성중공업(+3.4%)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